

#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

##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
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  
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[www.sanclementemission.org](http://www.sanclementemission.org) | 통권 제 26 권 88 호

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(스페인어)  
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스페인어)  
평일미사: 월, 화, 목요일에는 오후 6 시.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 
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평일미사 전 (오후 5:30 ~ 5:50)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.  
성체조배: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 
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: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 
성당사무실 시간: 화요일 ~ 금요일(9:30AM ~ 6:00PM)

미 사 성 가	입당 (59)	봉헌 (211)	성체 (153)	파견 (34)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

### 입당송 | 에스 4,17㉒-㉓ 참조

주님,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,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.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,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나이다.

### 제1독서 | 이사 5,1-7

**화답송 | 시편 80(79),9와 12.13-14.15-16.19-20(◎ 이사 5,7-11 참조)**

- ◎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.
-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,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.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,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. ◎
-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,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?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, 들짐승이 짓밟아버리나이다. ◎
- 만군의 하느님, 어서 돌아오소서.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,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.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,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. ◎
-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. 저희를 살려 주소서.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. 주 만군의 하느님,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.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. 저희가 구원되리이다. ◎

### 제2독서 | 필리 4,6-9

### 복음환호송 | 요한 15,16 참조

- ◎ 알렐루야.
- 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,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. ◎

### 복음 | 마태 21,33-43

### 성소를 위한 기도

- 좋으신 목자 예수님,  
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 
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.
- 비오니, 오늘도  
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 
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,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.
-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,  
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 
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
-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 
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 
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
- 주님,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 
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.
-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 
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.
- ◎ 아멘.

◆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◆

날짜	미사해설	독서	복사
10/1	이 그레이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10/8	이 마틸다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10/15	이 그레이스	이 바오로 / 김 유스티나	박 다니엘
10/22	유 요한	이 요한 / 김 헬레나	박 다니엘

영어독서:

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

주일미사	봉헌금	2차 봉헌	교무금
10/1	\$256	\$140	\$920

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

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, 오후: 3시 입니다.

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9/16	유 요한/ 유 마리아	10/21	이 바오로/이 빅토리아
9/23	홍 마르코/ 홍 아녜스	10/28	장 글라라/김 글라라
9/30	이 그레이스/ 김 마르타	11/4	김 헬레나/박 세라피나
10/7	김 요아킴/ 고 안나	11/11	배 시몬/김 안드레아
10/14	김유스티노/ 김유스티나	11/18	오 베드로/오 루시아

‘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’ 를 부탁드립니다.

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, 자매님들 그리고,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.

공동체 소식

성체조배 안내: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

지난 9월 7일 성체조배에 참석해 주신 형제,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형제,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는 성체조배일은 성당 사정으로 인하여 둘째 목요일로 이동하여 드립니다.

\*\*\*다음 성체조배는 10월 13일 입니다.\*\*\*

한인공동체 임원회의: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

이번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는 10/8/17(오늘) 오후 7시 에 있습니다.

임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장소는 사제관 입니다.

11월 5일 가을축제에 Raffle Ticket 판매

티켓은 (5장에 \$25) 이요한 총무님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1등\$2,000 2등\$1,000 3등\$500 외 푸짐한 상품이 준비됩니다.

축제 음식은 불고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.

로스리오 성월 - 목주기도

로스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30분전 목주기도를 드립니다.

형제 자매님께서서는 30분 일찍 오시어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

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: 매주 화요일 오후 8:30

지난 화요일 기도 성가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. 문의: 박 바오로 (661-342-7130)

다음 모임 장소: 10907 Prairie Stone Pl, Bakersfield. CA 93311

말씀의 이삭

아무나 할 수 있는 일, 누구도 하기 싫은 일

김나영 요셉피나 -작가-

작가로 살아가면서 신앙과 가장 부딪히는 마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‘교만’입니다. 분명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과분한 인정을 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저 자신을 특별한 부류로 착각하게 되니 말입니다. ‘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면 되지’라는 생각으로 은총은 누리고 봉사는 뒷전이기 일쑤지요. 물론 봉사라는걸 아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자모회 활동 조금, 반장활동 조금, 성서모임 봉사 조금. 이것저것 짚끔짚끔 흥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이어왔으니까요. 그러다 몇 년 전, 그나마 해오던 봉사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훌가분하게 ‘주일만 지키는 신자’로 돌아왔습니다. 이유는 있었습니다.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실수가 계속 됐거든요. ‘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’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, 저는 해오던 모든 봉사를 포기했습니다. 아니죠. 포기라는 단어는 놓기 어려운 것을 놓았을 때 쓰는 말이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. 저는 봉사를 때려치웠습니다. 처음엔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이런저런 일에 쫓기지 않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, 부담을 내려놓고 보니 곁에 있는 교우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. 무엇보다 드디어 작가라는 ‘고고한 신분’을 회복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. 제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 간식은 만들어졌고, 제가 없어도 구역장님께서 저희 반원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. 시간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.

주일 신자로 돌아가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. 아직 후임 반장이 정해지지 않아 성사표를 돌리기로 해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하필이면 그해 들어 가장 추운 날 성사표를 돌리게 되었지요.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들은 언 손을 붙잡아 호호 붙여주시고,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시고, 글은 잘 쓰고 있냐 물어봐주시고, 추운 날 고생한다며 김 한 톱, 양말 한 상자, 녹차 봉지같은 선물들을 쥐여주셨습니다. 달랑 성사표만 들고 나섰던 제 양손이 선물들로,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풍성 해졌습니다. 고작 2년, 억지로 떠맡아 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그것은 사랑이었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. 이 글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려면 저는 그날로 다시 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도 봉사를 쉬고 있습니다. 저에게 딱 맞는 특별한 봉사가 주어질 거라는 교만한 마음과 여전히 싸우면서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,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, 그 어려운 걸 오늘도 묵묵히 해내고 계신 수많은 봉사자들을 정말 존경합니다.

<서울주보 중에서>

목주기도는

악의 해결책이며

축복의 근원 입니다.

-레오 13세 교황-